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⑨ 충남 논산 관촉사 왕벚나무

과학과 의미부여 사이에 화사해지는 건 '나'

관촉사거리에서 관촉사까지 3킬로미터 정도 심어진 벚나무는 수많은 종류 가운데 왕벚나무에 속하는데, 2013년 국립수목원이 전국 벚꽃길 20선을 추천할 당시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길로 알려져 있다. 수령이 궁금해 택시기사에게 물으니 1970년대 중반 무렵 박정희 前 대통령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심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50년이 넘어가 죽어가는 나무도 더러 있어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것 같다.

빠르게 지나치는 나무들을 보는데, 간혹 꽃을 피우지 못하고 기울어져 가는 자태들이 언뜻 밟혀 짠해진다. 그동안 사람들을 즐겁게 한 대가치고 가혹해 보이는 건 자연의 나무와 거리의 나무는 생의 주기가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자연이고 어떤 거리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시 공해가 좋을 리는 없고, 특히 숲에서는 뿌리가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는 데 간격이 정해져 있는 구획의 공간에서는 홀로 고군분투해야 한다. 게다가 많은 잎을 피워 에너지를 충당할 만하면 툭툭 전정을 당하는 처지라 애틋한 연민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은 찰나에도 변한다고 반야산 관촉사 일주문을 뒤덮고 있는 듯한 무성한 왕벚나무 꽃잔치에 그만 입을 헤벌리고 만다. 지금 절집에 가는 건지 꽃대궐에 입성하는 건지 애매한 경계가 무색할 만큼 하얗게 햇빛을 반사시키는 극락의 순간에 멈칫 서서 황홀지경에 빠진다. 그것은 중국의 지안 스님이 석조미륵보살입상을 보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고 해서 관촉사로 이름 지었다는 유래와 연결되면서 찰나가 푹푹 쌓인 하루의 일정에 감사를 하고는 경내로 향한다.

눈도 마음도 화사해져 풍선처럼 가벼워진 몸으로 천왕문을 지나는데, 잎도 꽃도 아무런 조짐을 보이지 않아 수피만으로 동정할 수 없는 키 큰 나무들이 압도를 한다. 바닥을 훑어서라도 살필까 하다가 은진미륵이란 이름이 친근한 관촉사의 상징 석조미륵보살입상을 마주하기 위해 가파른 계단을 훌쩍 오른다.

고려 광종(968년) 때 왕명을 받아 혜명이 창건했다는 관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로 호국사찰을 표명하고 있다. 후백제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논산 일대에 고려 왕의 존재감을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민심을 얻기 위해 위로의 표시로 은진미륵을 조성했다는 반야산 중턱에 들어서면 멀리 계룡산까지 이어지는 평야에 넋을 잃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백제의 백성으로 살아온 이들이 어디서든 보이는 관촉사와 은진미륵을 경배하면서 고려의 백성으로 살려는 다짐을 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신은영의 '관촉사 석조보살연구'를 보면, 후백제의 서기 어린 땅과 원한 품은 백성들의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 '비보(裨補)' 차원에서 18m가 넘는 상징물을 조성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모두 야외에 세워진 미륵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BTN이 방영한 관촉사 내용 가운데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높이 30m 정도의 보호 전각이 있었는데, 유지가 어려워 조선 후반기에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충남 논산 관촉사 왕벚나무.

커다란 권력에 짓눌려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던져준 은진미륵 앞에 서니 결국 나의 삶을 결정할 이는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은진미륵을 덧씌운 평가들 때문인데, 은진미륵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떠나 그에 대한 미학적 잣대가 분분한 게 모두 그들의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경향신문 이기환 역사 스토리텔러가 정리한 은진미륵 관련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균형미는 없다. 머리 부분이 지나치게 크고 면상(面相)이 평범하며 의상의 수법이 간결하다"(세키노 다다시)도 있고, "중후하고 역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조형미를 갖췄고 통일신라와는 완전히 다른 파격과 신비의 미적 감각을 담은…가장 독창성 짙은 불교조각"(문화재위원회 국보심의회의)도 있다.

한때 왕벚나무 원조를 두고 우리의 나무인가, 일본의 나무인가 논쟁이 치열했는데, 2018년 제주도 왕벚나무 다섯 그루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나무로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최근 이 가운데 한 개체가 일본 왕벚나무인 소메이요시노와 동일한 유전체를 갖고 있다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보는 수많은 왕벚나무들이 제주 자생 왕벚나무인가, 일본 재배 왕벚나무인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주 자생 왕벚나무 235그루 유전체를 전부 분석해야 하는데, 개체당 1억 원이 드는 비용이 문제가 된단다.

수많은 벚나무 종류 가운데 왕벚나무가 유독 눈에 띄는 건 잎이 나기 전 꽃만으로 뒤덮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상하듯 빨리 지기 때문인데, 이는 매개곤충을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번식 전략이다. 즉 왕벚나무 입장에서는 과학인데, 우리는 거기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무엇이든 보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 은진미륵이 건네주는 따듯한 미소를 껴안고 있는 그 앞 왕벚나무를 보는 내 마음에 집중해 본다. 오직 나만이 화사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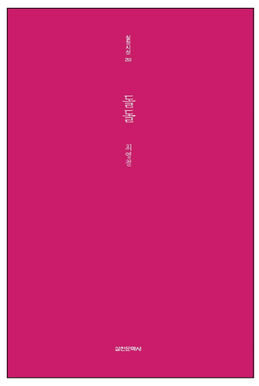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⑨ 최영철의 '와불 지나며'

부처님오신날엔 모두가 동등한 '一花'



최영철 시집, 《돌돌》, 실천문학사, 2017

와불 지나며 / 최영철

산에서 도적을 만난 늙은 중이 가진 것을 다 내주고 나서 말하였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풀로 나를 가두시게 도적은 웃으며 근처의 풀을 당겨와 중을 묶어두고 떠났다 곧 밤이 오고 매서운 바람이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다 풀이 다칠까 봐 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휘두른 채찍에 중의 몸은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뿌리치고 나오면 그만이었으나 중은 또 다른 도적이 나타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그대로 있었다 새 도적이 비웃으며 묶인 중을 풀어주었으나 제 몰골은 아랑곳 않고 풀이 다친 데는 없는지 한참을 살폈다

누더기를 얻어 몸에 걸친 중이 한 집에 들어가 먹을 걸 구했다 불쌍히 여긴 주인이 부엌으로 간 사이 집오리가 제 주인이 만지던 옥구슬을 냉큼 삼켰다 포식이라도 한 듯 뒤뚱뒤뚱 광으로 사라졌다 주인이 묻자 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인은 중을 두들겨 패고 광에 가두었다 중은 밤새 배앓이를 하는 집오리의 배를 어루만졌다 자신의 배를 가른다고 해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 거위는 다음날 옥구슬을 개울에 내놓았으나 중은 더 견고한 옥에 갇혔다 중은 아직 옥에 있다 그 집 마당을 돌아다닐 거위 생각을 하며 빙그레 웃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 음미하기 딱 좋은 시다. 게다가 '풀이 다칠까 봐 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니, 제 몰골은 아랑곳 않고 풀이 다친 데는 없는지 한참을 살폈다'니, 이런 어리석은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으로도 모자라 중은 주인 몰래 옥구슬을 '냉큼' 삼켜버린 집오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집오리 대신 주인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광에 갇혀서도 (옥구슬로 포식한 탓에) '밤새 배앓이를 하는 집오리의 배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멍텅구리 같은 인간이, 천치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있다. 그런 천치 같은 인간이, 바보 같은 인간이, 멍텅구리 같은 인간이 있다, 불교에. 오늘 생일을 맞이한 고타마 싯다르타가 바로 그런 얼간이다. 멍청한 것으로 치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멍청하고, 독존(獨存)으로 치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독존하는 모질이가 바로 고타마 싯다르타인 것이다.

고타마 싯다르타의 그런 치명적인 모자람(?)은 탄생게(誕生偈)에 잘 나타나 있다. 아니,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지만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한다'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라니, 이런 독선과 아집과 꼰대식 고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고타마 싯다르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보고 멍텅구리고 자기 혼자만 잘난 체하는 천치인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또한 고타마 싯다르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깨어 있는 성자(聖者)이고, 견자(見者)이고, 동체대비의 '옥구슬'인 것이다. 최영철 시인은 이를 또 이렇게 그리고 있다.

노스님 한 분 석가와 같은 날로 입적 잡아 놓고
그날 아침저녁 공양 잘하시고
절마당도 두어 번 말끔하게 쓸어 놓으시고
서산 해 넘어가자 문턱 하나 넘어
이승에서 저승으로 자리를 옮기신다

고무줄 하나 당기고 있다가 탁 놓아 버리듯
훌쩍 떨어져 내린 못난 땡감 하나
뭇 새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 땡감 떫고 떫어
참 다행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헛물만 켜고 간 배고픈 새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다고 땡감은 생각하고

노스님을 떨구어낸 감나무
이제 좀 홀가분해 팔기지개를 켜기 시작하고
'통도사 땡감 하나' (최영철 시집, 〈호루라기〉, 문학과지성사, 2006)

언뜻 보기에 '땡감' 처럼 못나고 쓸모없는 것도 없다.

실하게 골붉은 다른 감들을 위해 스스로를 걸러내는 아름다운 낙과, 그런 '땡감'이기에 고타마 싯다르타는 치명적인 얼간이고, 치명적인 바보이고, 치명적인 독존이고, 치명적인 모질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또한 고타마 싯다르타가 치명적으로 넓고 낮은 동체대비의 삶, 마당의 삶, 풀의 삶, 거위의 삶을 살았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고타마 싯다르타의 위대성과 실존적 역사성은 여기에 있다. '부처님오신날'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도 여기에 있다.

이제 밝힌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는 독선과 고루와 독단이 아닌, 가장 낮고 넓고 존엄한 생의 바탕(뿌리)이다. 생의 이타적(利他的) 측면에서 모든 인간(생명)은 스스로 존귀하고 고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와 늙은 중과 풀과 도적과 바람과 옥구슬과 주인과 집오리는 모두 동등하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은 모두가 동등한 '일화(一花)'의 날이기도 하다.

〈불교문학연구소장〉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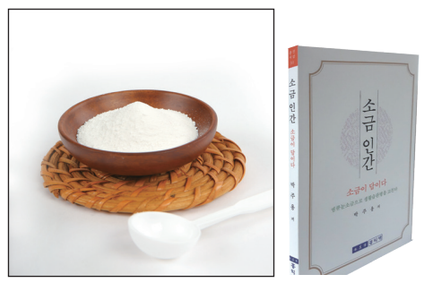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